교육청 반발에도 교육부 '교부금 개편' 본격화

전국 시·도 교육감 "대학 지원 위한 별도 재정 만들어야"
'교육재정특위' 꾸려 대응 계획…교육 관련 단체도 반발

정부가 지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에 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 관련 단체도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나주범 차관보, 교육부 실·국장들은 이달 21일까지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교원노조 대표를 잇따라 만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교육감과 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부금 개편 필요성,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계 일원화)과 초등 전일제를 비롯한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방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교부금 개편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사용돼 왔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면 함께 늘어난다.

정부는 내국세 증가와 학생 수 감소, 고등·평생교육 수요 확대를 고려해 교부금 일부(교육세)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확충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차관은 "교부금 제도는 열악한 재정 속 급증하는 학령인구의 교육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2022년의 교육 여건은 이전과 달라졌다"며 "특별회계로 지역 발전 거점을 키우고 고등교육 과제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교원노조는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학력 격차를 좁히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려면 유·초·중등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고등교육 재원 부족 문제에 동의하지만, 교부금을 떼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달 22일 대구에서 열릴 총회에서 가칭 '교육재정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정부 방침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내국세의 일부를 무조건 교부금으로 쓰는 방식이나 용처에 대해서는 그간 계속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다만, 교육계 안에서도 입장차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정서행동문제 중재역량 강화
동강대-광주교대 업무협약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정서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전문가 양성에도 힘쓴다.

동강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교내 본관 1층 장원홀에서 광주교육대 통합교육지원센터,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정서 행동 문제 중재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강대는 광주교대,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2022년 시민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정서 행동 문제 중재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동강대 사회복지과 송미옥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성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 정책이 현실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데다 지역에서의 전문 교육 과정이 매우 부족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교육 및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동강대 인문사회관에서 개강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9일까지 총 60시간 진행된다. ▲대상별(영유아, 장애영유아, 노인) ▲기관별(어린이집, 특수어린이집, 발달장애주간보호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복지관) 등 맞춤형 교육으로 다양한 행동 중재방법과 지도방안을 모색한다.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장 중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도 키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독서의 계절, 책으로 소통하는 우리
전남도교육청, 전남독서문화한마당 성료

김대중(왼쪽 두번째) 전남도교육감이 나주에서 열린 전남독서문화한마당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남교육 가족과 도민들이 책을 매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양일간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 수변문화마당에서 제7회 전남독서문화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전남교육가족과 도민, 나주 시민 등은 이틀 동안 진행된 이 축제에서 '서書로 통하는 우리'라는 주제 아래 준비된 책 마당, 사람 마당, 도서관 마당에 참여하며 독서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했다.

'책마당'에서는 '천하무적 용기맨' 등 작가 4인의 그림책을 살펴 보았으며, 전남도교육청 전자도서관, 4D체험, VR-AR 체험 등 다양한 디지털 북을 체험했다. 야외무대에서는 책을 소재로 한 인형극을 감상하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사람마당'에서는 김영하, 천선란, 김겨울, 이수지 작가가 참여하는 북콘서트에 참여해 작가들의 작품과 세계관을 공유했다. 특히 김경희, 윤강미, 미우, 송혜승 작가들과 함께 팝업인형 만들기, 소풍도시락 상자 만들기 등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상상여행'이 펼쳐졌다. '도서관 마당'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차체 도서관과 독서단체, 출판사 등이 설치한 55개의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뤄졌다.

행사장을 찾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아이들에게는 상상·도전·창조하는 힘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은 책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독서문화한마당을 통해 책의 소중함,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깨닫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외국인 유학생들 안전한 다문화 사회 조성
동신대,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 발대식

동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의 안전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다. 동신대는 최근 나주경찰서 4층 이화마루에서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열었다. 〈사진〉

행사에는 동신대 이주희 총장과 박상훈 나주경찰서장, 신현열 나주시 자율방범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동신대 외국인 유학생 20명에게 자율방범대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육과 2시간 동안의 합동순찰을 진행했다.

이들 유학생은 앞으로 2개조(1조 10명)로 나뉘어 한 주씩 19~22시간 동안 자율방범대로서, 치안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범죄 피해 신고와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인다.

대학 내에서는 유학생간 또는 한국 학생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캠퍼스와 대학 주변 원룸 등을 돌며 순찰과 범죄 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체계적인 다문화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다문화 사회 기반 마련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동신대에는 현재 533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251명, 중국 140명, 우즈베키스탄 106명, 기타 36명이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안봉사 활동을 통해 유학생들이 직접 자신과 친구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대학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주여대-조선대
교원양성기관 업무협약

광주여자대학교 교직과정센터는 최근 조선대 사범관 3층 회의실에서 광주여자대학교 교원양성기관과 조선대학교 교원양성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양 대학은 교육과 및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간 호혜와 협조를 바탕으로 발전과 우의를 다지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사양성교육 강화 및 교육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특히 양 대학은 이번 협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양 대학 교원양성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했다.

협력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 혁신 공유대학 공동운영 체계 구축,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상시 협업, 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 교수 및 수업 교류 등이다.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협력, 교육 시설·자원 공유, 출판물, 도서, 교육자료 등 학술정보 상호 교환 등도 포함됐다.

광주여대 교직과정센터장 한민석 교수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역량있는 예비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대학 외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협약 취지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